

In brief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27 July 2017

금융부채의 조건변경 – IFRS 9에 따른 차이 확인

Issue

2017년 7월 IASB는 IFRS 9 하에서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를 확인하였다. 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가 조건 변경되었으나 제거되지 않은 경우, 차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차손익은 기존 계약상 현금흐름과 변경된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IFRS 9, 문단 B5.4.6)

이는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C”)의 잠정적 결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IC는 이 이슈를 해석위원회의 결정으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결론을 확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대신 IASB는 IFRS 9의 결론도출근거를 개정하여 IFRS 9에 따른 회계처리가 명확하고 기준서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Impact

이는 모든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IAS 39에서 차손익 인식에 대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하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금융부채의 조건 변경일에 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계약상 현금흐름과 변경된 현금흐름의 차이는 조건변경된 부채의 잔여기간에 걸쳐 재계산된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되었다. IFRS 9에서는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달라질 것이므로 IFRS 9 도입시 조정되어야 한다.

기업들로 하여금 IAS 39에서 기존 회계정책의 변경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IFRS 9 도입시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IFRS 9은 소급적용되므로 IFRS 9 최초 적용일(12 월말 법인의 경우 2018년 1월 1일)에 아직 인식되어 있는 조건변경된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관련 차손익을 계산하여 기초 이익잉여금을 조정해야 한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